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o 제146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의제 대응

□ 과제명

o 2020년 WHO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 슈립

□ 출장기간

o 2020.02.04.(화)~2020.02.09.(일)

□ 출장국가(도시)

o 스위스 제네바

□ 출장자

o 전진아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20.02.04	제네바	-	-	인천 출발 제네바 도착
2020.02.05.	제네바	WHO 본부	-	제146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의제 대응
2020.02.07	제네바	WHO 본부	-	제146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의제 대응
2020.02.08	제네바	WHO 본부	-	제146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의제 대응 제네바 출발
2020.02.09	인천		-	인천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①	제146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0.02.05
장 소	WHO 본부 집행이사회 회의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전병왕 국장, 전진아 연구위원

11. Follow-up to the high-level meetings of the UNGA on health-related issues: Universal health coverage: moving together to build a healthier world

○ 회원국은 보편적 의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고위급회의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제고시킨 WHO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또한, 회원국은 WHO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리더쉽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음.

- 회원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관련하여 재난적 의료비(독일, 인도네시아 등), 높은 본인 부담비용(브라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은 일차 의료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독일, 카자흐스탄),
- 회원국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함(독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세네갈, 스위스).
- 회원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데이터와 정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으며(싱가포르, 일본), 이를 통해 산출된 근거와 경험들이 국가간 공유되는 기회들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케냐, 일본, 중국 등),

○ 그 외에도 회원국은 2, 3차 재활 및 완화의료에 대한 고려(호주, 독일), 젠더 센서티브한 접근(이라크, 호주 등), 인구 고령화(호주), 구강보건(스리랑카), 모성 및 신생아 건강(잠비아, 영국), 필수 의약품에의 접근성 강화(볼리비아, 인도), 신체 및 정신건강(헝가리), 항생제 내성 및 기후 변화(영국), e-health와 같은 신기술(슬로바키아), 보건인력 양성 및 보호(미국, 가이아나 등), 등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를 언급하였음.

○ 회원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이행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카자흐스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다영역적 접근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 사무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UNGA를 통해 제고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보장성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 하지만 기대한 수준만큼 보장성 수준이 충분한 것은 아니며, 회원국이 발언한 것처럼 재난적 의료비 지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정치적 관심도 제고를 통한 보건의료에의 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사무국은 또한 WHO 내에 primary health care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며, 이 조직을 담당할 책임자를 곧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2.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third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한 정신건강, 대기오염, 유해한 음주에 대한 내용이 집행이사회에서 검토되었음. 회원국은 정신건강, 대기오염, 유해한 음주 모두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언급하며,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예방가능한 사망을 줄이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수준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언급함(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

- 전반적으로 회원국은 만성질환과 관련하여 스크리닝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접근성,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근거들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미국, 노르웨이 등)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예방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싱가포르, 이스라엘, 호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에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하며(아르헨티나), 생애주기에 따른, 회복 지향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함(핀란드, 포르투갈). 회원국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스티그마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영국, 덴마크). 회원국은 정신건강 역시 일차 보건의료 케어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 및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언급함(호주, 포르투갈). 그 외에도 일부 회원국은 살충제를 이용한 자살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현하기도 함(호주, 미국)

○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대기오염과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싱가포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대기오염과 건강 간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observatory 설치 등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함(케냐, 오스트리아 등)

○ 유해한 음주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다고 언급하며(스웨덴), 주로 접근성 제한 조치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함(스웨덴, 타지키스탄). 음주 예방 및 관리 역시 일차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호주), 국가 내 및 국가 간 다영역적 협력을 통해 근거 기반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함(브라질, 한국, 캐나다 등)

○ 사무국은 정신건강, 대기오염, 유해한 음주와 정신건강 간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회원국이 이들 문제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개입을 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밝힘.

3. Accelerating the elimination of cervical cancer as a global public health problem

○ 회원국은 자궁경부암 종식이 SDG 및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언급하며, HPV가 국가 예방접종 체계에 통합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함(한국, 호주, 잠비아). 또한 자궁경부암 종식을 위한 노력이 일차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한국, 통가, 독일, 루마니아) 일차 보건의료체계에 종사하는 보건인력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루마니아).

- 회원국은 HPV 백신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저소득 국가 및 취약계층의 낮은 백신 접근성을 강조하였음(베닌, 슬로바키아, GAVI).
- 회원국은 HPV 바이러스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남녀 모두에게 전염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한다고 발언함(오스트리아, 한국, 프랑스)

- 회원국은 자궁경부암은 성 및 재생산 건강, 암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유관 분야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한국, 독일, 태국), 스크리닝 및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가이아나, 싱가포르, 가봉 등)

○ 사무국은 자궁경부암 퇴치를 위한 옹호와 자원 동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기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경험하는 HPV 백신 부족 문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힘.

○ 회원국의 반대없이 자궁경부암 종식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

②	**제146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0.02.06
장 소	WHO 본부 집행이사회 회의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전병왕 국장, 전진아 연구위원

1. epilepsy

○ 회원국은 러시아가 주도한 간질에 관한 의제를 검토하였으며, 간질로 인한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언급함(중국, 수단). 회원국은 간질이 치료가능하지만 높은 스티그마를 보이는 질환이라는 점을 언급하며(러시아) 간질로 인한 당사자 및 가족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언급함(호주, 이탈리아, 수단).
○ 회원국은 간질이 신경학적 질환과의 공존질환을 보이는 경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국가 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치료에서의 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호주, 수단, 카자흐스탄). 이에 따라 회원국은 치료에서의 갭을 줄일 수 있는 WHO의 국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호주).
○ 또한 회원국은 간질에 대한 대응이 일차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일차보건의료체계가 간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대응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조지아, 카자흐스탄, 이란).

2. Integrated, people-centered eye care, including preventable blindness and impaired vision

○ 회원국은 2019년 10월에 WHO에서 출판한 시각(vision)에 대한 첫 세계 보고서를 환영하였으며 '인간중심의 통합적 눈 관리'에 대한 의제 채택을 강하게 지지함(일본, 싱가포르, 등). 회원국은 눈 건강이 SDG의 목표 3.8(재무적 위험 보호, 질 높은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질 좋고, 저렴한 필수 약품과 백신 접근 등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함(베닌, 에콰도르). 그 외에도 SDG 목표 4인 교육, SDG 목표 8인 지속적 경제성장과도 연관성이 높다고 발언함(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등)
○ 회원국은 눈 관리를 위한 두 가지 지표-굴절 오차의 유효범위와 백내장 수술의 유효범위-를 WHO Impact Framework for the Thirteenth General Programme of Work, 2019-2023의 보편적 의료보장 지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함(싱가포르, 터키, 등).
○ 회원국은 인구 고령화 등 세계 인구통계학적 추세와 행동 및 생활방식 요인들이 눈 상태와 시력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수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였으며(일본, 호주 등), 눈 건강 조기 발견 및 적시에 관리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싱가포르, 호주 등)
○ 회원국은 해결되지 않은 굴절 오차와 백내장은 공공보건 영역의 미완성 의제 중 중요한 항목으로 남

아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보건시스템 내에서 안과 치료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함(싱가포르, 이란 등).

○ 회원국은 일차의료를 통해 눈 상태의 조기식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과 치료가 보편적 의료보장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오스트리아, 인도, 중국 등). 또한 지속가능하고 인간중심의 통합된 눈 관리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수준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인간중심의 통합된 안과 치료를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함(타지키스탄, 중국, 몬테네그로).

3.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 회원국은 이 의제와 관련하여 2019년 이후 5차례 개최된 비공식 회의를 주도해온 브라질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필수의약품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하였음(독일, 케냐 등). 또한 회원국은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집행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하기도 하였음(브라질 등)

○ 회원국은 필수 의약품에의 접근성 강화가 제13차 GPW에 제시된 보건 우선순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였으며(튀니지아, 독일, 미국 등), 필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혁신, 정보 공유 강화,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이라크, 인도네시아, 중국, 덴마크 등). 또한 회원국은 가격접근성의 개선, 지속가능한 충분한 자금의 확보가 각 국가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함(튀니지아, 이라크)

○ 회원국은 공중보건, 혁신,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근거 기반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각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연구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인도네시아, 중국 등)

③	제146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0.02.07
장 소	WHO 본부 집행이사회 회의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전병왕 국장, 전진아 연구위원

1. Decade of Healthy Ageing

○ 회원국은 건강 노화를 위해서는 보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칠레, 이스라엘, 케냐). 특히 독일은 노인의 빈곤문제와 연금 체계 역시 건강 노화에서 주요한 요소라고 언급함. 이 때문에 건강 노화는 다영역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회원국은 공통적으로 언급함(칠레, 싱가포르 등). 국가 내 건강 노화와 관련된 정책간 부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건강노화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 영양 정책과도 부합성이 높아야 한다고 가조함(케냐, 이라크)

○ 회원국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 기술 및 혁신 기술의 사용 강화(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노인 친화적인 환경 및 보건시스템 구축(뉴질랜드, 싱가포르)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 회원국은 각 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건강 노화 정책들을 모니터링 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호주, 독일), WHO의 지배기구회의체 뿐 아니라 UN 전반적인 차원에서 건강 노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함(독일, 미국).

2. Provisional Agenda of the 73rd World Health Assembly and date and place of the 147th session of the Executive Board

○ 총회 논의 이슈와 관련하여 팔레스타인, 시리아 골란 지역의 보건 이슈를 논의하는 의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이슈로 보건 의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제 제외를 신청하였으며,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원안대로 보건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의제 포함을 요청하였음. 이사국 간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roll call vote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전체 34개 이사국 중 32개국의 참석 하에 찬성 7개 국가(이스라엘,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에스와티니, 독일), 반대 15개 국가(인도네시아, 이라크,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단, 타지키스탄, 튀니지나,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베닌, 칠레, 중국, 지부티, 가이아나), 기권 10개 국가(이탈리아, 일본, 케냐, 루마니아, 통가, 잠비아, 부르키나파소, 핀란드, 가봉, 조지아)으로 나타나 원안인 세계보건총회 의제로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세계보건총회 이슈 중 천연두 종식에 관한 의제는 별도 의제가 아닌 이행사항 보고 의제로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인프라 기금 업데이트 의제의 경우 제네바 빌딩 리노베이션 전략으로 의제 명이 변경되었음.
○ 제147차 집행이사회는 5월 22일 WHO 본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함.

3. Maternal, infant and young child nutrition

○ 회원국은 모성, 신생아 및 아동 영양 촉진을 위한 진전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음(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회원국은 이 의제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와 같은 신 기술을 활용한 식품 마케팅, 모유 대체 식품 등 최근 부각 되는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국가 및 글로벌 차원의 데이터 취합 및 분석이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스리랑카. 싱가포르)
○ 또한 회원국은 영양에 있어 취약한 계층인 아동 및 신생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잠비아, 호주, 중국 등), 더 나은 영양을 위한 가격접근성을 개선해야한다고 언급하기도 함(잠비아). 그리고 회원국은 WHO가 보다 젠더 민감성을 가지고 FAO 등 관련 UN 기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 의제에 관한 활동을 강화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힘(미국, 베닌 등).

4. Accelerating efforts on food safety

○ 회원국은 식품안전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최근 식품매개 질환이 증가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음(호주, 케냐). 식품 매개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식수 위생 관리와 더불어 위기관리와 위기 소통 강화(호주, 케냐, 중국), WHO와 FAO 간 협력 강화(호주, 스리랑카, 싱가포르). 국가 간 정보 공유(케냐, 일본), 근거 기반 식품 안전성 강화 노력 (스리랑카, 호주), 식품매개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관련 정보 취합 및 분석 등 연구(미국, 아르헨티나)의 중요성을 회원국들이 강조함(호주, 케냐, 싱가포르 등).
○ 회원국은 국가 간 식품 안전 거버넌스 체계와 역량아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중국 등), 식품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등을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who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함(미국, 아르헨티나 등). 또한 회원국은 식품 안전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무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이슈에 초점을 둔 재원 조달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음(독일, 중국, 미국 등).

5. Data and innovation: draft global strategy on digital health

○ 회원국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표준화된 접근 및 법제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독일, 이스라엘), 이를 위한 국가 간 정보 공유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함(독일, 중국, 일본). 회원국은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리에 디지털 헬스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며(독일, 이스라엘),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접근성, 효과성, 가격접근성, 환자 중심 서비스, 문해력 및 정보 관리의 영역들이 향후에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독일, 한국, 핀란드).

○ 회원국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거버넌스(예. 윤리,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체계 구축이 각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함(EHERDLF, 핀란드, 싱가포르, 한국 등). 또한 회원국은 디지털 헬스의 상호성(독일, 한국 등), AI 및 빅데이터(중국, 한국, 핀란드 등) 활용을 강조하기도 함. 그리고 디지털 헬스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각국 및 글로벌 차원의 재원조달의 중요성(방글라데시) 및 관련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함.

○ 회원국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각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였으며, 2년마다 집행이사회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독일, 중국, 일본 등)

④	제146차 집행이사회 참석 및 의제대응
일 시	2020.02.08
장 소	WHO 본부 집행이사회 회의장
참석자	보건복지부 전병왕 국장, 전진아 연구위원

1. 폴리오 박멸 (Polio eradication, 문서 EB146/21, EB146/21 Add.1)

○ 대부분의 집행이사국 및 회원국은 Polio End game이 2023년으로 연장된 것을 환영했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은 국가 간 및 국제협력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함

- 예방접종률 제고, 감시체계 강화, 국가방역 조치 마련을 통해 폴리오를 비롯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으며(미국, 태국 등), 폴리오 퇴치 우선 국가로 지정된 나라들을 우선 지원할 것을 WHO에 요청함(이라크, 수단, 가봉, 아프리카 지역사무처 등). 또한 국가별로 상이한 조건에서 어떻게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강조함
-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월 폴리오 바이러스 취급을 위한 WHO 인증 첫 단계를 통과했음. 폴리오 박멸 및 전환에 대한 각 국가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WHO의 다각화된 접근방식과 통합적 전략에 대해 동의 및 지지 의사를 밝힘(한국)

○ 사무국은 WHO가 폴리오 고위험국가 방문을 통해 폴리오 박멸에 대한 국가 내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고, 국내·외 자금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

- (중동지역 사무처장) 폴리오 전환 우선 국가 중 4개국(소말리아, 수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 중동지역에 속해있으며,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장) 폴리오 전환 우선 국가 중 5개국(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속해있으며, 폴리오 박멸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국가 폴리오 전환 계획 수립, 기초 예방접종률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프리카지역 사무처장) 폴리오 전환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자금 확보 및 이행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WHO 고위험국가 방문 등을 통해 자금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2. 콜레라 예방 및 관리 (Public health emergencies: Cholera prevention and control, 문서 EB146/20)

○ 대부분의 집행이사국 및 회원국은 그간의 콜레라 예방 및 관리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고위급 연계를 통한 다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함(수단, 탄자니아, 인도 등). 특히 콜레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식수위생 분야 및 사회경제개발 사업과의 연계(가봉, 칠레, 태국 등), 지역사회 중심의 콜레라 인식제고 및 예방접종 사업 수행(수단, 인도 등) 등을 제안함. 또한 취약한 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진단 및 실험실 장비 모니터링(수단),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콜레라 조기탐지 및 신속한 치료 보장(탄자니아, 인도, 러시아 등) 등의 중요성을 언급함

○ 사무국은 회원국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보다 효과적인 콜레라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위급 연계 및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옹호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함

3. 세계 보건의 날 (World Health Days, 문서 EB146/36)

○ 회원국은 세계보건의 날을 통해 보건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음(타지키스탄, 독일, 인도네시아 등). 하지만 세계보건의 날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계보건의 날이 가져다주는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음(인도네시아, 에스와티니). 보다 구체적으로 회원국은 세계보건의 날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비용편익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독일, 브라질, 미국)

○ WHO가 어떻게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브라질, 독일)

4. 자문기관의 보고: 전문가 위원회와 연구그룹 (Reports of advisory bodies, 문서 EB146/51, EB146/51 Ad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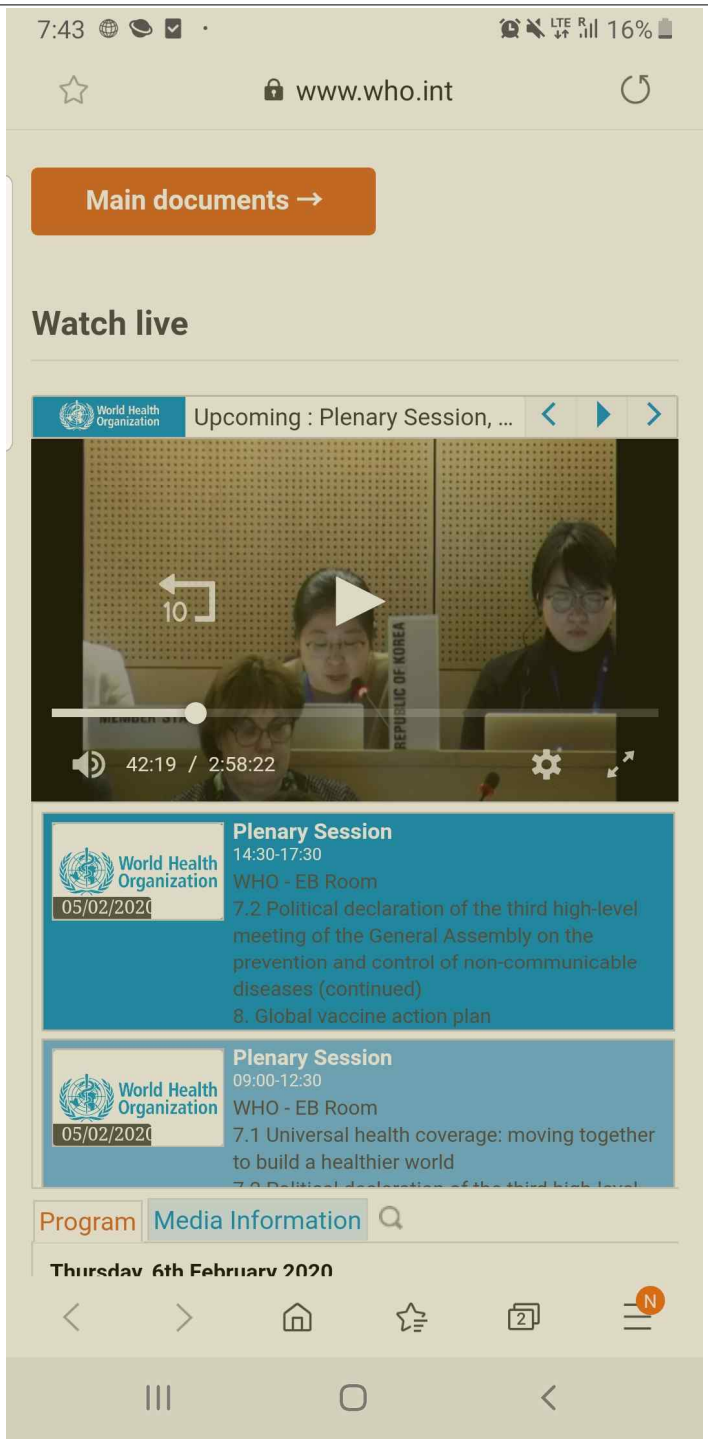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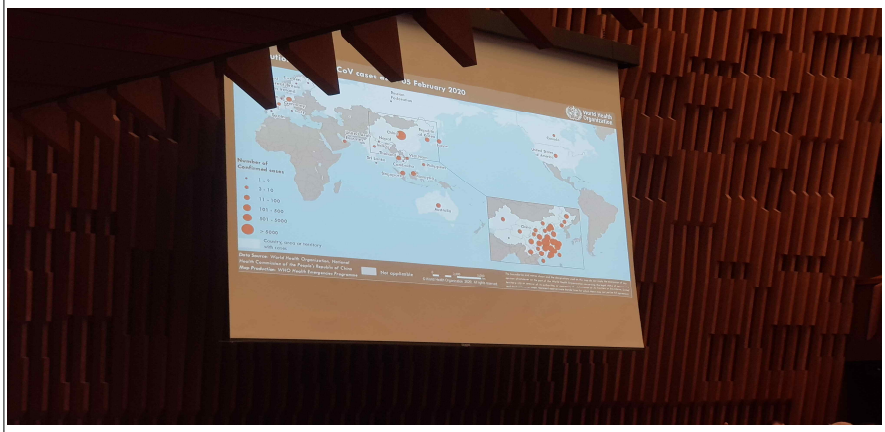
○ 회원국은 공중보건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WHO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문기구의 보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자문기구의 보고서는 회원국의 이견 없이 검토되었음

5. WHO 사무총장 선거에 대한 평가 (Evaluation of the elect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문서 EB146/39)

○ 집행이사국 및 회원국은 사무총장 선거 평가에 대한 자문 과정을 주도해온 가나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과정이었음을 강조함(가나, 브라질 등)
-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선거비용, 절차, 방식 등에 대한 자문결과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며(탄자니아, 호주), 선거 평가에 대한 자문을 통해 제안된 향후 선거 개선을 위한 결정안을 지지함(호주, 싱가포르 등)
- 또한 회원국은 행동강령에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위원회)설치 등 행동강령 준

수 메커니즘에 대한 향후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탄자니아, 미국 등). 그 외에도, 다른 UN 기구의 선거 운동 기간 검토를 통한 선거 운동 기간에 대한 재검토(캐나다)와 전자 투표 방식의 실험과 적용(영국, 탄자니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함//

3 출장 증빙 (세미나 및 회의현장 사진, 명함 등)

회의장 발언	

코로나19 유행 상황 업데이트